

데스크시각



채희중
편집부국장·사회부장

비록 며칠간이나 참 편했다. 출퇴근 길 탁 트인 도로에 일상의 혼잡을 벗겨줬고, 졸 서지 않고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또한 소소한 재미였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의 '나홀로' 관람은 그야말로 '인생 킷'이었다. 그러나 한가함을 누리는 것도 하루 이틀일 뿐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만나지도, 모이지도, 만지지도' 않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생동맞은 '사회적 거리 두기', '언택트'나 '비대면'이니 평소 쓰지도 않는 말을 날마다 보고 듣고 있다. 감염 예방 차원의 접촉 금지를 뜻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 전쟁에 임하는 전 세계인에 대한 명령어가 됐다. 이 명령어는 접촉(contact) 금지를 뜻하는 언택트(untact: un+contact의 합성어), 즉 '마주 보고 대하지 않는다'는 '비대면' (非對面)의 규칙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은폐칼럼



김창균
광주예술고 교감

바둑 천재 이세돌이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하였다. 그가 밝힌 은퇴 배경에는 수학적 계산으로 승리하는 AI에 대한 의문, 즉 AI 앞에서 바둑은 흑과 백의 작품이 아닌 그저 확률 싸움일 뿐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아버지 밑에서 그가 배운 바둑은 흑백이 만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는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AI가 가져온 회의감이 원인이 된 셈이다. 하지만 알파고와 제퍼디 퀴즈쇼에 출연한다면 2011년에 출연했던 AI 왓슨만큼 유명세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기게들이 막대한 데이터 분석은 쉽게 하지만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과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모라백의 역설'이 20년 내에 극복되리라는 전망도 있지만, '창조성, 복잡한 의사소통, 비판

기고



이호준
시인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은 대인 관계에서 '너무 가깝게도 멀게도 말라'는 뜻이다. 그 어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일화에서 인용된 것인데 당시 월나라 왕은 문종(文種)과 범려(范蠡)라는 인재를 얻어 온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 월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범려는 문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

"월왕 구천(勾踐)은 목이 길고 입이 튀어나와 매의 눈초리에 이리의 걸음을 하는 상이오. 이 같은 상을 한 사람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해야 하오. 만일 그대가 왕을 떠나지 않으면 왕은 장차 그대를 죽이고 말 것이오. 그러나 어서 이 왕궁을 떠나 그대의 살길을 도모하시오." 그러나 문종은 범려의 말을 믿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일상의 소중함

재택근무 중인 아내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두 아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필요한 것은 온라인 쇼핑으로 받는다. 퇴근길 먹거리 구매는 내 몫이다. 회사 일을 마치는 대로 귀가하고, 주말에도 외출 대신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때문이다. 벌써 한 달가량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서로를 지켜주는 거리

이렇게 온 가족이 조심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큰애가 감기에 걸리면서 잠시나마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게다가 인근에 사시는 어머니마저 이상 증세를 보여 깜짝 놀랐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감기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는 감기가 옮을까 아들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손자들이 간다고 하면 더욱 역성을 내며 결사반대하신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는지 전화까지 걸어 '오지 말라' 신신 당부하신다. 그렇게 보고 싶은 손자일 텐데, 사랑하는 손자를 나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거리 두기'임을, 할머니는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이다.

몇 주째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고, 있던 모임도 취소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텔레비전의 '코로나19' 비상 특보에서는 연일 지역 내 감염과 개학 연기에

관한 국내 뉴스는 물론 하루 사망자 1000명, 확진자 수 하루 1만 5000명, 2주 외출 금지, 3인 이상 모임 금지, 무인도 격리, 스페인 공주 코로나19 감염 사망, 거리 두기 위반자 매질, 국경 봉쇄 등 마치 전염병 영화의 장면인 듯한 외신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피트(1.83m)의 안전거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2m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들에게 1.5m 거리를 유지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며칠 전 밤, 코로나 뉴스에 몰려 무심코 돌린 채널에서 걸린 영화 한 편이 진한 여운을 남긴다. '파이브 피트'. 남포성 섬유중이라는 유전성 불치병을 앓는 젊은 연인들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였다. 폐가 절반밖에 기능하지 않는 이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폐 이식을 받아야 하지만 그나마 이식된 폐의 수명은 5년뿐인 시한부 인생이다. 병원에서 만난 스텔라(여)와 윌은 첫눈에 반하지만, 서로의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침이 날아가는 거리인 6피트를 유지한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다.

사랑이 깊어 가지만 이들은 키스를 할

수도, 안을 수도, 심지어 손을 잡을 수도 없다. 스텔라가 선택한 것은 6피트에서 딱 1피트만큼 거리를 좁히는 것이었다. 이날부터 둘은 5피트짜리 당구 채의 양 끝을 잡은 채 데이트를 한다. 실수로 스텔라가 연못에 빠지게 되고, 윌은 스텔라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게 된다. 스텔라는 의식을 찾지만 윌은 감염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게 된다. 어렵사리 건강을 회복한 윌은 "너를 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떠났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사랑마저 떼어 놓지만

"나 괜찮으니 오지 마라. 감기 걸리니까 애들 데려오지 마. 할머니 괜찮다고 해." 행여나 손자들이 감기에 옮을까 봐, 당신 집에 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늘 당연했던 일상이, 늘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그리워지는 시기이다.

어그집이 모란이, 벚꽃이, 그리고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이 왔다. 화사한 꽃들이 다 지고 봄날이 갈 때, 코로나도 함께 데려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2m 떨어진 채 서로가 서로를 지켜 주어야 할 것이다.

알아야 면장

적 사고'가 인간 고유의 영역임을 미래 기술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부정하지는 못한다. 특히 팩트로 가장한 내용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진실을 읽어 내는 능력은 한 분야에 특화된 AI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일 것이다.

예컨대,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분류하는 이른바 혈액형 분류법이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고 밝힌 바 있다. 진화한 민족일수록 A형이 B형보다 많다는 독일의 이론에 따라 그들이 한국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위해 혈액형 분류법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혈액형 분류법에 감춰진 식민주의 근대를 관통하는 지식과 권력의 계보를 읽어 내는 능력을 AI에게서 기대하기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아닐까 싶다.

오늘 같은 만우절에 유명한 스포츠가 업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속하는 전기 트랙터'를 개발했다는 엉뚱한 발표를 하더라도 재치 있는 만우절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창조적 행복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하여 유튜브나 SNS 등에서 도

를 넘는 가짜 뉴스(Fake News)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대상을 기만하고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눈앞의 담벼락에 갇힌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세상을 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에 갇혀서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즉 가짜 정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될 우려 말이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다. 면장(面長) 노릇을 하는 데에도 식견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여전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은 "배우지 않으면 면장(面牆)하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서경(書經) 구절의 '면장(面牆·담벼락에 대함)'이 무지함의 비유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뜻의 '면장(免面牆)'이 '면장을 한다'로 이어진 것이다.

소수 매체를 통한 제한적 정보가 전부이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무한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유롭게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초연결 공간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검색하여 정선(精選)했다고 확신하는 정보가 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공했거나, 일부를 은폐한 왜곡 정보일 수 있다. 오히려 더욱 공고한 담벼락을 마주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누구나라도 가짜 뉴스의 함정에서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 충성을 앞둔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허위 조작 정보를 판별해 내는 능력이 필요함도 절감할 것이다. 그러니 의도적 해석을 거친 정보를 근거로 비타협적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는지, 확정편향으로 뽕뽕 뭉친 아집을 무비판적으로 두둔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분야만 특화된 AI와 달리 우리 인간은 관계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덧씌워 놓은 프레임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익숙한 동굴을 박차고 나가 동굴 밖의 새로운 현실을 확인하고, 동굴의 벽에 일렁이는 왜곡된 허상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담벼락을 비판적 사고의 창(窓)으로 열어나가는 노력이 없다면 면장(面牆)에서 결코 더 나아가지 못한다.

社說

사상 첫 '온라인 개학'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코로나19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됐다. 오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년은 16일과 20일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해 12월 3일 치러진다.

교육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은 오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각 학교는 4월 1일부터 1~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준비한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들은 학생들이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 방안을 익히는 적응 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온라인 개학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과 학사 일정 사이에서 고민하던 끝에 꺼내든 교육자책이지만 학교나 학생 모두 준비가 충분치 않아 우려가 크다. 한국교육

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생 중 원격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 안팎에 불과하다. 학교 수준으로도 2018년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가 중학교는 18.9%, 고등학교는 29.5%에 그쳤을 뿐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혹은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의 경우 집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기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도농 간 디지털 격차에 따른 학습 불균형도 걱정이다. 교육부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은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이고 교육당국조차 아무런 예행연습 없이 온라인 개학을 맞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남은 기간 학습 결손이 없도록 세밀한 보완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18왜곡대책위 보다 적극적인 활동 나서야

광주시가 지난 2013년 구성한 뒤 7년째 운영하고 있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간판만 걸어 놓은 채 개접휴업 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5·18 왜곡과 폄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에 꾸려진 5·18왜곡 대책위는 지난 7년간 15차례 회의를 열고 역사 왜곡 법률 대응 등을 논의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구성 당시인 2013년 5월에만 13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받으며 본격적인 왜곡·비방 사례에 대한 대응 활동에 나섰지만 이후 법률적 한계 등에 부딪히면서 실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하다.

대책위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5·18 왜곡·비방글 3건과 관련,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모욕죄 등을 제기해 이 가운데 1건에 대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이끌

어 냈다.

나머지 1건은 반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고 다른 1건은 기소 중지된 상태다. 종편에 출현해 5·18을 왜곡·폄훼한 탈북자·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소송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벌 소독 없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날로 심해지고 있는 유튜브와 SNS에서의 폄훼·비방 활동과 비교하면 5·18왜곡 대책위의 활동은 초라하기만 하다. 이는 5·18왜곡 대책위 활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새롭게 꾸린 '5·18역사왜곡 테스크포스'와 활동 계획이 결집되는 지경도 없다. 따라서 국무 세력의 악의적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부터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5·18 왜곡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늘 사후약방문식이어서는 곤란하다.

無 等 鼓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없는 '위성정당' (衛星政黨)이 탄생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웠다. 과거 선거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터라 유권자들도 혼란스럽기만 하다.

'위성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을 말한다. 구색을 맞추고 해서 이른바 '구색정당' (具色政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가 보여 주듯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 혹은 일당 독재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정당이

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여당과 제1야당이 비정기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지는 취지에서 이번 총선에 첫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꼼수 경쟁'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말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획득하면, 비례 의석 배분에서 거대 정당들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거대양당으로서는 지역구 의석

를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숫자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념·군소 정당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과 조직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깰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썩살아하겠다는 욕심에 위성정당에 '의원 귀뚜기'라는 폄소까지 동원하면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상실됐다. 결국 승자독식의 한국 정치 문화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폄소가 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확히 1년 전. 대한민국 국회의 선거제 개혁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과 고성아 오갔고, 이 때문에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썼다.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 국민을 실망시킨 거대 양당이 이번에는 또 한 번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를 유지하지는 기만술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냉정하게 표로 심판할지 기대해 본다.

/최권열 기자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牧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담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